

下廬 黃德吉과 順菴系列 星湖學派의 興起

姜世求

- I. 머리말
- II. 황덕길의 삶과 성호학과 입문배경
- III. 황덕길의 학통과 성호·순암인식
- IV. 학문성향과 서학인식을 통해 본 순암·성호의 영향
- V. 맺음말

I. 머리말

1763년 星湖 李瀼이 타계한 이후, 성호학파는 일부 젊은 학자들이 양명학이나 서학 등 새로운 학문과 사상에 관심이 깊어짐에 따라 18세기 후반에는 점차 분열양상의 깊이를 더해 갔다. 1770년대 성호문인의 원로였던 邵南 尹東奎(1695-1773)와 貞山 李秉休(1710-1776) 등이 타계하자, 이후 실질적으로 성호학파를 이끌었던 順菴 安鼎福(1712-1791)은 성호학파의 유지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으나 뜻대로 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1880년대에 들어 안정복이 일찍부터 학문적으로 큰 기대를 걸었던 문인 권철신을 중심으로 한 재능있는 젊은 학자들은 천주교에서 손을 떼라는 안정복의 끈질긴 만류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리게

되어 성호학파는 사실상 분열의 위기를 맞았다. 그나마 이러한 상황에서도 안정복이 살아 있을 때에는 천주교에 입교하거나 관련을 맺은 성호학파의 사람들도 표면적으로는 안정복에게 성호문인 원로로서의 예우를 갖추었다. 이즈음 안정복은 천주교에 대한 이론적 비판을 가하는 한편, 다가올 박해를 예견하면서 성호학파의 유지는 물론이고 문인들의 구명차원에서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없이 그는 1791년 타계하고 말았다. 안정복의 뜻은 그를 따르던 문인들에게 이어져 가게 되었다.

여기에서 안정복이 타계한 뒤, 그의 유지를 받들어 성호학파의 재기를 다짐하던 안정복문인들의 활동에 눈을 돌려 볼까 한다.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안정복의 수제자로서 총애받았던 拱白堂 黃德壹(1748-1800)과 下廬 黃德吉(1750-1827) 형제에 주목하되, 이 글에서는 동생 황덕길을 고찰대상으로 삼는다.

이들 형제는 안정복의 학문과 사상을 가장 철저하게 전수한 인물이다. 그런데 후대사람들은 안정복으로부터 이어지는 학문적 계보를 따질 때 동생 황덕길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그것은 황덕길로 이어진 안정복계열 성호학통의 사승관계가 20세기 초까지 끊임없이 유지·전승되어 왔다고 평가받기 때문일 것이다. 황덕일은 동생 황덕길의 학문적 성장을 이끌었고, 황덕길 또한 형의 학문과 언행을 존중하여 따랐다. 황덕일이 스승 안정복의 곁을 떠나 한강남쪽 陽川에서 후학을 양성하던 拱白堂에는 문하생이 되려고 몰려드는 사람이 대단히 많았다고 한다.¹⁾ 그러나 불행히도 황덕일은 안정복이 세상을 뜬 뒤 9년만에 53세(1900)를 일기로 타계하고 말았다. 이후 황덕길은 형 황덕일이 걸었던 길을 이어받아, 후학교육에 매진하는 한편 학문에 열중하였다. 이리하

1) 『拱白堂先生文集』 8, 附錄, 拱白堂先生行狀

여 廣州 德谷에서 이루어졌던 안정복의 학문은 황덕일에 의하여 양천으로 옮겨졌고, 이를 황덕길이 전승시켜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후인들이 순암 안정복의 학문적 계보를 황덕길로 이어놓은 것도 무리는 아니라 하겠다.

이에 필자는 순암 안정복으로 이어진 성호학통이 황덕길을 거쳐 다시 후대로 전승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황덕길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더우기 18세기의 성호학파가 이후 어떻게 진행되어 나아갔는가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그의 삶과 순암계열 성호학파에 입문하게 된 배경, 후인이 본 그의 학통과 이익·안정복에 대한 황덕길의 생각을 정리해 본다. 이어 그의 학문성향과 서학인식을 분석해 보면서 이익과 안정복으로부터 어느정도의 영향을 받았는가를 검토해 보는 순서로 전개하고자 한다.

II. 황덕길의 삶과 성호학파 입문배경

황덕길(本貫: 昌原, 字: 而修 혹은 耳叟, 號: 下廬 혹은 斗湖)은 영조 26년(1750) 12월 4일 경기도 陽川縣에서 魯野 黃以坤(1719-1750)과 白川 趙氏 사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가계는 선대로부터 근기남인에 속하였다. 그가 태어나기에 앞서 같은해 7월에는 아버지, 이어 9월에는 할아버지마저 타계하는 등 집안이 갑자기 기울어 가는 가운데 유복자로 출생하였다. 어머니 조씨는 무남독녀로써 친정아버지 鞠齋 趙景采(1694-1765)로부터 가정교육을 착실히 받아 漢學에 밝았고, 여자였지만 선비의 태도를 지니면서 자녀의 교육에 매우 엄격하였다. 유년기의 황덕길은 형 황덕일과는 달리 놀기를 즐기고 책읽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어머니의 엄한 가르침은 그가 학문에 전념토록 독서의 방향을 잘 잡아 주었고 아들의 독서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교육하

였다고 전한다.²⁾ 9살(1758) 때 형 황덕일과 함께 가까운 거리에 있던 양천현의 외갓집에 가서 외할아버지 조경채로부터 7년 동안 經史子集과 詩文 등을 수업하였다. 그 사이에 14살(1763) 때에는 안산의 성호 이익을 방문하기도 하였다.³⁾

외할아버지 조경채가 죽자, 수업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온 형제는 독서에만 전념하였다. 이 때 『心經』에 이어 『近思錄』도 읽었다. 이는 심성도야를 중하게 여기던 어머니의 교육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조씨는 형제에게 죽은 남편 황이곤의 학문을 자주 들려 주면서 과거시험을 목적으로한 공부를 권하지 않았다. 언젠가 두 아들이 과거시험에 낙방하고 돌아 오자, 조씨는 공부가 정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위로하면서 과거에 매달리는 공부를 만류하였다고 한다.⁴⁾ 형제는 어릴 때부터 溪澗의 글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그것은 선대로부터 소장된 문헌이 그 때까지 잘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⁵⁾

20살(1769) 때 황덕길은 '左曰養性 右曰寡慾'이라는 좌우명을 지어 이를 몸소 실행에 옮기면서 자기 수양을 위한 공부에 힘썼다.⁶⁾ 23살(1772) 때에는 『東國九賢贊』을 저술하였는데, 九賢이란 정몽주·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서경덕·이황·조식·정구를 말한다.⁷⁾

그러다가 24살(1773)되던 해 겨울,⁸⁾ 어머니는 두 아들에게 당시 경기

2) 『下廬先生文集』 17, 行狀, 先妣夫人白川趙氏家狀

德吉兄弟 每讀書 夫人必問 讀何書讀了 必問 幾遍課程有序---

3) 『하려선생문집』 跋(廬相稷 畝)

---十四歲 謁星湖李先生---

4) 『하려선생문집』 17, 행장, 선비부인백천조씨가장

5) 황덕길의 집안에는 옷대로부터 소장되어온 문헌이 많았던 것 같다.(『하려선생문집』 권2, 書, 答趙敏中, 庚戌(1790) 조씨는 남편이 보던 서적을 매우 귀중하게 여겨 보관하였다고 한다.(『하려선생문집』 17, 行狀, 先考魯野府君行狀)

6) 『하려선생문집』 12, 左右銘, 己丑(1769)

7) 『하려선생문집』 12, 景賢贊

8) 廬相稷이 쓴 『하려선생문집』 발문에는 황덕길이 21살 때 안정복을 방문하여 수업을 청하였다고 기록하였으나, 형 황덕일이 직접 쓴 『德谷記聞』(『공백당선생문

도 廣州 德谷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던 순암 안정복을 직접 찾아가 문하생이 되기를 권하였다.⁹⁾ 이리하여 형제는 양천에서 90리길을 걸어 덕곡의 안정복을 찾았다. 안정복은 이들이 전에 성호문인으로써 동문수학한 황이곤의 아들임을 알고 매우 반가와 하였다. 그리고 황이곤의 학문이 매우 높았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 자기밑에서 학문할 것을 기꺼이 허락하였다.

황덕일·황덕길 형제를 제자로 맞아들인 안정복은 ‘배우는 자의 법도는 마땅히 朱子를 주인으로 삼는다. 주자를 배우려면 먼저 退溪를 공부해야 한다.’¹⁰⁾ 하고 『李子粹語』를 먼저 읽도록 권하였다. 상봉한 첫날, 안정복과 황덕길 형제는 많은 것을 토론하였다. 理氣論, 詞章, 이단사상 등에 관하여 주로 황덕일이 자신의 소견을 말하고 안정복이 응답하는 토론이 오가는 가운데 안정복과 형제사이에는 학문적으로 상통하는 점이 많았다. 27년전(1746), 안정복이 안산의 성호 이익을 첫방문하여 밤새도록 경전을 토론하던 것과 유사한 상봉이었다. 이 방문을 계기로 황덕길은 형 황덕일과 함께 순암문인이 되었고, 이후 양천 본가와 德谷精舍를 오르내리면서 안정복의 각별한 가르침을 받는 수제자가 되었다.

28살(1777) 때에는 巴陵 后浦에서 柳北으로 옮겨 살다가, 34살(1783) 때 다시 후포로 이사하여 이후 이곳에서 여생을 보냈다. 36살(1785) 때에는 강원도 치악산을 여행하고 도중에 張顯光의 문인 觀雪堂 許厚를 봉안한 陶泉書院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40살(1789) 때에 어머니 조씨의 상을 당하였고, 2년뒤(1791)에는 스승 안정복과도 사별하였다. 44살(1793) 때에는 친구 李永復·沈英錫 등과 함께 금강산을 여행하며 명승고적을 유람하였고, 48살(1797) 때에는 『陽川鄉約』을 지어 縣監에게

집』 4, 雜著)에는癸巳년 겨울에 처음 배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계사년은 1773년이다. 본인이 직접 쓴 황덕일의 기록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때 황덕일의 나이 24세가 된다.

9) 『하려선생문집』 17, 행장, 선비부인백천조씨가장

10) 『공백당선생문집』 4, 잡저, 덕곡기문

실시해 볼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 51살(1800) 때 형 황덕일이 타계함으로써 가문의 일을 도맡게 되었다. 68살(1817) 때에는 경기도 포천에서 許傳(1897-1886)·許儔 형제가 찾아와 문하가 되기를 청하였다. 황덕길은 이들 형제에게 1773년 형 황덕일과 함께 광주 덕곡의 안정복을 방문하였을 때 안정복이 그랬던 것처럼, 『李子粹語』를 먼저 읽을 것을 권하였다.¹¹⁾ 70살(1819)되던 해 봄에는 고향 斗湖에 '斗湖精舍'를 지어 후학을 양성하는 곳으로 삼았다. 원래 이 일은 형 황덕일이 계획하였으나 병환으로 이루지 못하고 타계함으로써 20년동안 미루어 오다가 황덕길이 지어 완성하였던 것이다.¹²⁾

그는 노년기에 들어 특히 스승 순암의 문집과 성호의 유고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에 힘썼다. 순암문집은 안정복의 손자 安喆重(1755-1820)과 증손자 安孝根(1802-1855)의 협조를 얻어 저술을 모아 수년동안 세밀하게 검토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작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매우 고심하였다.¹³⁾ 성호의 유고에 대해서는 성호의 증손자 李載南(1755-1835)과 협조하여 흠어져 있는 저술을 모아 정리하고, 소장되어 있는 자료도 종류에 따라 분류·편차하는 작업이었는데, 그는 이 작업이 자신들이 살아 있을 때 해야 할 책임이라고 여겼다. 이제남은 황덕길의 이 일에 적극 협조하면서 성호의 저술을 보내 주었다.¹⁴⁾ 그만큼 황덕길은 성호학파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성호와 순암의 학문을 계승시키는 일에 힘썼다고 하겠다. 그러나 황덕길의 이 작업은 당대에는 완성되지 못하였다.

말년에 황덕길은 성호문집을 정리하다가 1827년 11월 15일¹⁵⁾ 78세를

11) 『性齋先生文集』, 附錄 卷2, 年譜 17年 丁丑條

12) 『하려선생문집』 10, 記, 斗湖精舍記

13) 황덕길이 고심한 순암문집에 대한 교정과 등사문제는 『하려선생문집』 2, 書, 答安重吉(喆重), 庚辰(1820); 같은 책 4, 書, 答尹國美(克培)와 與安子性(孝根)에 잘 나타나 있다.

14) 『하려선생문집』 5, 書, 與李侯良(載南), 丁亥(1827)

15) 황덕길이 타계한 날짜를 許傳은 행장(1871년에 씀)에 11월 15일로 쓰고, 허전의

일기로 타계하여 巴陵 南山에 묻혔다. 순암문집과 성호문집은 훗날 安禧遠·盧相稷·趙昞奎·權泰榮·安鍾惠 등 황덕길의 제자 허전문인들에 의하여 영남에서 빛을 보게 되었다.

황덕길은 생전에 여러 저작을 남겼다.¹⁶⁾ 그의 문집은 1917년 창원에서 노상직을 중심으로 조병규·金鎬源 등 허전문인과 허전의 증손 許應, 그리고 황덕길의 자손 黃洙建에 의하여 간행되었다.¹⁷⁾

앞서 본 바와 같이, 황덕길은 14살 때 안산을 방문하여 성호를 처음 만나 보았고, 24살(1773) 때 겨울 형 황덕일과 함께 경기도 광주 덕곡에 살고 있던 안정복을 찾아 문하생이 되기를 청하였다. 이를 계기로 황덕길 형제는 순암계열 성호학파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처럼 이들 형제가 어릴적부터 성호학파의 일원이 된 데에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다. 황덕길의 가문은 조상 대대로 경기도 양천에 살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한 근기남인에 속하였다. 성균관 진사였던 할아버지 獨醒齋 黃最(1680-1750)는 丁時翰의 문인 寬谷 金華潤과 桐巢 南夏

문인 盧相稷은 「하려선생문집」跋(1817년에 씀)에 11월 11일로 썼다. 허전이 황덕길의 제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허전의 기록이 정확하리라 여겨 11월 15일을 받아 들인다.

16) 황덕길의 저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2세(영조 48년, 1772) 「東國九賢贊」·32세(정조 5년, 1781) 「四官之戒」·33세(정조 6년, 1782) 「三子實記」·35세(정조 8년, 1784) 「三先生詩」·37세(정조 10년, 1786) 「東賢學則」·38세(정조 11년, 1787) 「日用輯要」·39세(정조 12년, 1788) 「聖賢群輔錄」증보·42세(정조 15년, 1791) 「四端七情說」과 「異端說」·44세(정조 17년, 1793) 「金剛山志」·48세(정조 21년, 1797) 「陽川鄉約」·52세(순조 원년, 1801) 「順菴先生行狀」·53세(순조 2년, 1802) 「蓬古史」·60세(순조 9년, 1809) 「濂閩文粹」·61세(순조 10년, 1810) 「道學源流」·「詩變」·71세(순조 20년) 「讀書次第圖」·「日省圖」·73세(순조 22년, 1822) 「塾規」·75세(순조 24년, 1824) 「眉叟先生不祧祀議」·「巴社七里洞規」

그 밖에 저술연대를 확인할 수 없는 저술로 「朝野信筆」(규장각 고서번호 15580)과 시문집인 「放言」, 그리고 「대학」·「중용」·「춘추」·朱子의 저술에 관한 강의록이 있다.

17) 「하려선생문집」편찬에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로 柳鍾一, 「하려선생문집 간행의 출판사회학적 접근」, 「서지학보」 10호, (한국서지학회, 1993)가 참조된다.

正, 默齋 睦天任을 비롯하여 朴趾文, 李德靑, 李惠靑, 洪日煥, 洪濟輔 등과 어울린 명류였다고 전한다.¹⁸⁾ 이들은 당시 성호와도 가까이 교류하였던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인맥에서 황덕길의 아버지 황이곤이 성호 문하생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식을 엄하게 교육한 황최의 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황이곤을 문하생을 받아 들인 성호는 ‘우리 당에 인물이 있다.’고 할 정도로 황이곤의 재질을 높히 평가하였다.¹⁹⁾ 그러나 황이곤은 32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러면 황덕일·황덕길 형제가 순암 안정복문인이 된 것은 어떤 연유에서였을까. 안정복과 황덕길의 집안은 선대로부터 잘 아는 사이였다. 울산부사를 지낸 안정복의 할아버지 安瑞羽와 황덕길의 할아버지 황최는 잘 아는 사이였고, 그로 인하여 안정복도 황최로부터 학업에 대한 독려를 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²⁰⁾ 그리고 황이곤이 성호문하생으로 들어 오면서 안정복은 황이곤과 같은 성호문인으로써 동문수학하는 사이가 되었다. 성호가 황이곤의 학문성을 아꼈던 것 처럼, 안정복 또한 자기보다 7살 아래인 황이곤의 비상한 학문을 높히 평가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황덕길의 할머니 즉 황최의 부인은 안정복의 從姑母이다. 따라서 안정복의 집안과 황덕길의 집안은 일찌기 왕래가 있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가문적 배경에서 유복자로 태어나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란 황덕길이 14살 때 형과 함께 겨우 성호를 알현하였으나, 성호는 같은해 타계하고 말았다. 따라서 성호와 황덕길은 직접적인 사제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그가 안정복의 문하생이 된 것은 결정적으로 어머니 조씨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씨는 안정복이 죽은 남편 황이곤과 성호밀에

18) 「하러선생문집」 18, 遺事, 寬谷金先生遺事, 辛未 및 桐巢先生南公遺事, 癸未 참조

19) 「하러선생문집」 19, 행장

---諱以坤 受業於星湖李先生 先生曰 吾黨有人---

20) 「順菴集」 23, 墓誌銘, 成均進士獨醒齋黃公墓誌銘 己亥

서 동문수학하였다는 사실과 노년기 안정복의 학문이 높다는 사실외에도, 남편의 학문성과 같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형제가 20살이 넘어서까지 정해진 스승없이 집에서만 독학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광주 덕곡의 안정복을 직접 찾아 문하생이 되기를 청하도록 권유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황덕길의 순암계열 성호학과 입문은 앞에서 본 것 처럼, 성호와 황덕길 선대의 학맥관계, 안정복과 황덕길 두 집안의 가문적 교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III. 황덕길의 학통과 성호 · 순암인식

1. 許傳의 後學들이 본 황덕길의 학통

황덕길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제자 許傳 · 安景緯 · 韓益相 등은 스승의 학통을 이익→안정복→황덕길로 보았다. 여기에서는 허전문인들이 스승 허전의 학통을 논하는 과정에서 허전의 스승 황덕길의 학통을 어떻게 보고 있었던가를 잠시 살펴 보기로 하자.²¹⁾ 이들은 모두 1890년대에 생존했던 황덕길의 손제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허목→이익→안정복→황덕길→허전으로 말한 문인

鄭趾善 · 鄭載善 · 李洪錫 · 金道源 · 河龍濟 · 宋在注 · 李碩瓚 ·
許薰 · 李一寧 · 許邇 · 安斗馨 · 李廷斗 · 權泰榮 · 李壽澈 ·
河在聖 · 許應 · 盧相稷 · 李根玉 · 朴致海 · 許垞 · 龍淵書院儒生
등

*이익→안정복→황덕길→허전으로 말한 문인

21) 『性齋先生文集』 부록 권3, 賜祭文, 士林祭文. 권4, 祭文. 권5, 輓章. 권6 言行總錄 등을 참조함.

趙昌奎 · 全奎炳 · 李祥奎 · 盧秀東 등

*안정복→황덕길→허전으로 말한 문인

韓致肇 · 李漢寧 · 宋在注(祭文에서) 등

*노상직이 말한 허전의 학통(請改謚註疏)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조광조→이언적→

이황→정구→허목→이익→안정복→황덕길→허전

위 계보는 허전의 문인들이 1886년 허전이 죽은 뒤 祭文이나 輓章, 그리고 그 밖의 글을 통하여 허전의 학통을 나타낸 것이다. 이들이 나타낸 학통에서 몇가지 주목되는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로 19세기 말 허전의 문인들은 공히 허전의 학통을 이익→안정복→황덕길→허전으로 이어진 계보로 말하였다. 이는 곧 허전의 스승 황덕길이 18세기 성호학파의 안정복계열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로 이들은 이익이 창도한 성호학파에서 안정복계열이 사승관계를 유지하여 자신들의 세대, 즉 19세기 말까지 이어 왔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자신들이 성호학통의 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1880년대 성호학파가 사실상 분열된 이래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들 스스로 성호학통이라는 계보의식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19세기 말의 자신들은 대략 성호학통 제4세대가 되는 셈이고 순암계열로 말한다면 제3세대가 된다.

특히 허전의 애제자 노상직은 허전의 학통을 고려말 정몽주로부터 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조광조→이언적→이황→정구→허목→이익→안정복→황덕길→허전으로 이어지는 계보로 소상하게 전개하고, 황덕길을 이익과 안정복의 嫡統이라고까지 말하였다. 이처럼 노상직을 비롯한 허전의 문인들은 이익에서 안정복으로 다시 황덕길로 이어진 학통이 성호학파의 정통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이들이 대부분 영남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허전문인들이 말하는 안정복계열 성호학통이 과연 18세기 성호학파

의 정통이 될 수 있는가의 타당성여부는 덮어 두고라도, 안정복→황덕길→허전→허전문인들의 사승관계로 20세기 초까지 이어져 오면서 영남지방에서 번창하였다는 사실은 18세기 후반 성호문인들이 분열된 이후, 성호학파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아갔는가를 이해함에 있어 주목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2. 황덕길의 성호인식

그러면 황덕길 본인은 성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가. 황덕길이 14살(1763) 때 안산의 성호 이익을 방문하였지만, 이익은 같은해 노환으로 타계하였다. 이익이 선대로부터 교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형 황덕일과 함께 문안 인사차 방문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후 10년 뒤 24살(1773) 때에 형 황덕일과 함께 광주 덕곡에 가서 안정복의 문하생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황덕길은 사실상 순수한 안정복의 문인이었다고 하겠다.

황덕길은 성호 이후의 학문적 계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직 우리 성호선생이 道를 창조하고 德을 세워 百世의 師表가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退陶이래 오직 한 사람 뿐이라고 한다. 우리 당에서 당시 門에 이르는 자 어느 누가 스승의 문에 서는 대열에 있지 않았고, 뒷날 책을 읽는 자 어느 누가 私淑하는 제자가 되지 않았던가. 뜻이 허황되게 크거나 식견이 좁은자, 文人, 詩人, 方外의 학문을 하는 자까지도 모여 머무르지 않는 자 없었다. 그 宗을 얻었으니 邵南과 順菴 두 선생이다. ---소남이 돌아 가시니 오직 순암이 우뚝 山野에 계시어 돌아 가신 스승의 뜻을 이어 저술하시고, 돌아 가신 스승의 말씀을 발휘하시어 책을 저술하고 말씀을 세우시니 막힘이 활짝 열린 듯 하였다.(『하려선생문집』 4, 書, 答鄭希仁, 丙戌(1826))

위 글에서 황덕길은 道를 창조하고 德을 세운 학자는 이황이래 성호 이익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당대 이익의 학문이 최고였다는 사실을 나타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소남 윤동규와 순암 안정복이 이어 오다가 윤동규가 먼저 세상을 뜬으로써 안정복이 성호학문을 계승·발전시켰다는 것이다. 윤동규와 안정복이 비록 같은 스승인 이익으로부터 수업하였지만, 윤동규는 안정복보다 나이가 17살이나 위이고 사실상 성호가 살아 있을 때 가장 신임한 학자로서 성호학파의 제2인자적 위치에 있던 사람이다. 안정복이 35살(1746) 때 성호문하생이 된 뒤에는 성리학을 비롯하여 역사와 지리 등 안정복의 학문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준 사람이기도 하다. 그리고 황덕길은 남달리 윤동규의 학덕 또한 매우 흠모하고 있었다.²²⁾ 여기에서 황덕길이 성호학파의 전승 계보를 자신의 스승인 안정복에 앞서 윤동규를 빼놓지 않았던 까닭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황덕길은 성호학파의 학통을 이익→윤동규·안정복→안정복으로 이어지는 계보로 보았다 하겠다. 이는 그의 형 황덕일이 이익→안정복으로 직접 이어 놓은 것과 대조를 이룬다.²³⁾

황덕길은 ‘後學이 된 자는 마땅히 星湖가 쓴 책을 읽고 성호의 학문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²⁴⁾ 이는 그의 학문이 성호학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익이 생전에 『天主實義』를 비판한 것이라든가,²⁵⁾ 『四七新編』의 내용을 극구 찬양한 데에서²⁶⁾ 그 역시 이익의 천주교배척과 성리론을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

22) 『하려선생문집』 4, 서, 答尹國美(克培)

近日 順菴先生文集新牘本 方在校讎 治厓上 奉讀邵南先生行狀 仰止遺範切恨---

23) 『공백당선생문집』 2, 서, 與愼文玉書

惟我先生 承星門之嫡傳 接陶山之遺統---

24) 『하려선생문집』 4, 서, 答正희인, 병술(1826)

25) 『하려선생문집』 4, 서, 答正희인, 병술, 別紙

26) 『하려선생문집』 9, 說, 四端七情說, 辛亥

을 알 수 있다. 그가 두호정사에서 후진을 양성할 때에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성호학문을 익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을 뿐 아니라, 성호의 저서를 실제로 내놓고 보였다고 한다.²⁷⁾ 그만큼 황덕길은 성호의 학문을 존중하여 후학에게 전승시키려 하였음을 알게 한다. 특히 『성호사설』이나 『곽우록』이 이익의 실학문이 결집된 핵심적 저술이라고 볼 때, 황덕길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교육하였는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성호학문에 대한 존경심은 말년에 성호문집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할 때에 '우리 儒家의 百世不朽의 자료로 삼음이 크게 옳다.'²⁸⁾고 한 말로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후대에 황덕길의 제자 허전이 성호학문을 익히고 조정에 성호의 謚狀을 쓴 사실, 그리고 문인들로부터 하여금 스승 황덕길이 못다한 성호문집을 재정리하게 하였던 것도 황덕길이 생전에 제자교육에 성호학문을 철저히 주입한 결과라고 보아 좋을 것이다. 이 모두 황덕길이 성호학통의 계승인식을 갖고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힘을 쏟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하겠다.

3. 황덕길의 순암인식

황덕길의 어머니 조씨는 남편의 학문을 자식들이 이어받기를 바랐다. 황덕길이 14살 때에 형 황덕일과 함께 이익을 알현한 것도 어머니의 권유가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한편 안정복은 황덕길의 아버지 황이곤과 서로 학문을 토론한 절친한 사이였다. 어머니 조씨는 안정복의 학문이 높았다는 사실을 들어 두 아들을 안정복의 문하생이 되게 하였다. 안정복이 성호학문을 그대로 전수받았던 것 처럼, 황덕길도 안정복으로부터 성호의 학문을 철저하게 익혔다.

27) 『性齋先生文集』, 附錄 2, 年譜, 高宗 23年, 丙戌(1886)

28) 『하러선생문집』 5, 서, 與李侯良(載南), 丁亥

스승 안정복의 학문에 대한 황덕길의 계승정신은 그가 남긴 저술에 잘 드러난다. 우선 안정복이 타계한 10년 뒤, 1801년 그가 쓴 「順菴先生行狀」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로 안정복의 저서에 대한 평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안정복이 저술한 「下學指南」·「內範」·「希賢錄」·「東史綱目」·「名物攷」·「洪範演義」·「雜卦說」·「小學講義」·「史鑑」·「列朝通紀」·「臨官政要」·「廣州誌」·「木州誌」등을 들어 모두 후학들이 법칙으로 삼을만 하다고 평하였다. 그 가운데 「하학지남」은 ‘평생 활용할 길잡이’라고 할 정도로 높히 평가하였다.²⁹⁾ 안정복은 생전에 하학의 중요성을 그의 문인들에게 거듭 강조하였고, 황덕일·황덕길 형제는 스승의 뜻을 착실하게 따랐다.³⁰⁾ 뒷날 황덕길은 하학에 열중하였으나 자신은 평생을 하여도 능하지 못하다고 자책하기도 하고,³¹⁾ 또 1827년 그의 회고에 따르면 자신이 「하학지남」을 읽기 시작하여 50년동안 ‘心得躬行’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하여 회한에 젖기도 하였다.³²⁾ 그만큼 그는 스승 안정복의 가르침대로 하학 연마를 학문의 기본으로 삼고 실행에 옮기며 닦았던 것이다. 그의 號 ‘下廬’의 ‘下’도 ‘下學而上達’의 ‘下’에 근거할 정도로³³⁾ 그의 학문은 하학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는 특히 1891년 안정복이 타계하기 수개월 전, 덕곡을 방문하여 스승에게 문안을 드렸을 때, 안정복이 80세의 노구로써 책상위에 「대학」을 놓고 읽는 것에 크게 감명을 받기도 하였다.³⁴⁾ 안정복은 생전에 孔·孟의 洙泗學에 철저하였고 제자들에게도 성리학에 심취하기 보다는 하학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였다.

29) 「하려선생문집」 16, 行狀, 順菴先生行狀

30) 「順菴集」 8, 書, 答黃而修書, 癸卯(1783)

31) 「하려선생문집」 3, 서, 答李穡圭, 丁卯(1807)

32) 「하려선생문집」 4, 서, 答尹國美(克培)

33) 「하려선생문집」 12, 銘, 下廬銘

34) 「하려선생문집」 16, 행장, 순암선생행장

둘째로 안정복이 퇴계의 道와 성호의 학문을 이어 빛냈다는 점을 들어 높이 평가하였다. 황덕길은 스승 안정복이 퇴계의 道를 전승하고, 성호의 학문을 크게 드러냈다는 사실뿐 아니라, 퇴계학에 뿌리를 둔 성호의 학문을 안정복이 일생을 두고 연마하여 발전시켰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³⁵⁾

그 밖에도 그는 「순암선생행장」을 통하여 양명학·불교·천주교 즉 이른바 이단학에 대한 안정복의 비판, 일찌기 愼後聘과 李秉休가 주장한 公喜怒理發에 반대입장을 보인 尹東奎의 公喜怒氣發論에 안정복이 따른 사실, 文章之學과 功利之學의 폐단을 지적하고 과거시험에서 詩賦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 등을 소개하면서 안정복의 견해에 동조하였다.

요컨대 황덕길은 스승 안정복의 학문이 성호의 학문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정통이라는 생각에 더욱 존경심을 발휘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성호학통의 순암계열이라는 황덕길의 자부심은 양천 두호정사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것이다.

4. 황덕길의 영남남인에 대한 기대

황덕길은 오직 “영남만이 孔·孟의 鄉”이라 하고,³⁶⁾ “嶠南과 漢北이 비록 산천으로 사이를 두고 있으나 스스로 같은 사람의 義를 지니고 있다.”라 하여,³⁷⁾ 영남지방과 근기지방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공

35) 「순암선생행장」

先生切磋琢磨 承於星湖 楷模準繩 惟在於退溪

황덕길이 쓴 順菴祭文(「順菴全集」輓祭文, (여강출판사, 1984))에도 유사한 내용이 실려 있다.

36) 「하러선생문집」 6, 서, 與嶺南士林, 癸丑

---惟茲嶠南 乃鄒魯之鄉---

37) 「하러선생문집」 6, 서, 與嶺南士林, 戊寅(1818)

히 퇴계학에 학문적 바탕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지니고, 영남유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학문과 동향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19세기 초 영남지방에는 일찌기 성호문인이나 성호와 교류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호학문이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 安景漸(1722-1789)·安景時(1712-1793)를 비롯하여 李宰(1657-1730)의 문인 李象靖(1711-1781), 이상정의 문인 南漢朝(1744-1810)와 鄭宗魯(1738-1816)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남한조의 대표적인 제자 柳致明(1777-1861)의 문인들 가운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황덕길의 문인 허전과 교류가 두터웠고, 19세기 후반들어서는 유치명의 계보가 허전의 문인이 된 자도 적지 않았다. 18세기 후반으로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이루어지는 이러한 영남남인과 성호학파의 관계에서 당시 순암문인 황덕길은 이상정문인인 남한조와 한정은, 유치명 등과 교류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그는 영남남인의 동향에 대해 적지않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그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대내적인 분열현상이었다. 사실 18세기 말을 전후한 시기만 하더라도 영남지방에서는 지연·학연·혈연 등의 관계가 얽혀 유림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이 19세기에 들어 鄉戰으로까지 번지면서 분열현상이 노골화 되었다.

그런데 근기남인 성호학파의 실정은 어떠하였던가. 앞서 보았듯이, 성호가 타계한 이후 양명학이나 서학에 심취한 학자들이 표면에 나타나면서 18세기 말 즈음에는 안정복을 주축으로 한 성호유학을 고수하려는 측과 양명학이나 서학 등 이른바 신학문을 추종하는 측으로 뚜렷하게 분열되는 사태를 빚게 되었다. 이어지는 정부의 박해가 전체 근기남인에 큰 타격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처럼 18세기 말 19세기 초반을 전후한 남인세계의 동향은 영남에서는 내부적인 주도권싸움으로, 근기남인 성호학파는 새로운 문물사조에 의한 밖으로부터의 영향으

로 분열되어 갔다고 보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도 성호 학문을 고수하는 학자들은 여전히 영남남인에게 기대하는 바가 컸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자신들과 학문적 성향을 같이하는 영남지방의 퇴계 학문이 거의 흔들림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근기의 학자들이 우려한대로 영남유림들의 내부적 분열현상이었다.

한 예로써 19세기 초 안동지방의 서원을 중심으로 벌어지던 이른바 '屏虎是非'에 대한 황덕길의 견해에 잘 나타난다. 병호시비는 안동지방 유림사회에서 벌어진 鄉戰이었다. 18세기 大山 李象靖(1711-1781)이 「退書節要」를 편찬하면서 門人錄을 쓰는데 당시 西厓 유성룡의 事蹟에 대한 '基湖' 두본의 진위여부가 문제가 되어, 유림들간에 屏論측(屏儒)과 虎論측(虎儒)으로 나뉘어 서로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었다. 병론측은 '基'본이 상세하여 진짜라 하였고, 호론측은 '基'본이 '湖'본의 초본으로써 '호'본이 진짜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에 대한 통문이 기호지방까지 퍼져 돌고 있었다. 많은 기호남인들은 자기들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 하여 영남의 이러한 분쟁에 대해 비교적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몇몇 뜻있는 인사들은 영남남인의 싸움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하여 화해를 중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바로 황덕길과 허전의 아버지 許珩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허형은 싸움을 그만두고 서로 화합해야 한다는 내용의 回諭文을 쓰도록 황덕길에게 청하였으나, 당시 주변 인사들의 중론이 일치되지 않아 그만두었다고 한다.³⁸⁾ 그런데 황덕길이 병호시비를 만류하는 영남유림앞으로 보낸 편지가 「하려선생문집」에 남아있다. 나중에 황덕길의 편지가 영남지방에 전해졌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황덕길은 이 편지를 통하여 병호시비에 대해 '같은 집의 다른 의견(同室異議)'일 뿐, 道를 지키고 선현을 모시는 일은 같다 하여 분열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함께 서로 합심할 것을

38) 「성재선생문집」 27, 家狀, 先考通訓大夫行司諫院正言贈嘉善大夫史曹參判兼弘文館提學府君編年紀事 참조

권유하였다.³⁹⁾

물론 영남과 근기의 남인은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조선 후기 봉당정치에 따라 정치적인 제휴를 하고⁴⁰⁾ 학문적인 교류를 하면서도, 지역적·경제적·정치적 환경 차이 때문에 학문성향이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성호학파의 학문이 영남남인의 보수적 학문성향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는가는 또 다른 고찰이 필요하겠지만, 성호학파 후예들이 보는 영남유림에 대한 시각은 이들의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이라 하겠다. 그러나 황덕길은 순암계열 성호학파의 원로로써 영남남인의 협력을 권유하는 충고와 함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고, 이러한 그의 활동은 훗날 제자 허전이 영남에서 성호학파를 일으키는 데 적지않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여겨진다.

IV. 학문성향과 서학인식을 통해 본 순암·성호의 영향

황덕길이 스승 안정복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리고 성호의 저술을 통하여 성호학문을 전수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서는 그의 독서방법과 학문적 성향, 그리고 서학인식을 검토해 보면서 성호와 순암으로부터 어느정도 영향을 입었는가를 들여다 보기로 한다.

1. 「讀書次第」를 통해 본 황덕길의 학문성향

황덕길은 「讀書次第圖」⁴¹⁾를 통하여 읽어야 할 책과 순서를 구체적

39) 『하려선생문집』 6, 서, 與嶺南士林, 戊寅

40) 영남남인과 근기남인의 제휴문제는 李樹健, 「조선후기 '嶺南'과 '京南'의 제휴」, 『碧史 李佑成교수 정년퇴직기념논총, 민족사의 전개와 그 문화』, (창작과 비평사, 1990)가 참고된다.

41) 『하려선생문집』 8, 雜著, 讀書次第圖. 이 「독서차제도」는 황덕길의 문인 허전에

으로 제시하였는데, 몇가지 주목되는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근사록』과 함께 『이자수어』를 먼저 읽어야 할 책으로 넣었다. 『이자수어』는 황덕일·황덕길 형제가 안정복에게 찾아와 문하생이 되기를 청했을 때 안정복이 먼저 읽도록 권한 책이기도 하다. 『이자수어』는 일찌기 성호가 퇴계의 언행을 모아 윤동규와 안정복으로 하여금 『근사록』의 예에 따라 편찬한 道學書이다. 안정복은 생전에 이 책을 매우 귀중하게 여겨 자주 문인들에게 필독하도록 권하였다. 황덕길도 안정복의 뜻을 따랐다고 하겠다. 한편, 性理에 관한 책을 次讀에 넣어 읽도록 하였다. 이는 성리학연마에 앞서 經典을 먼저 익혀야 한다는 황덕길의 학문관을 말해 준다 하겠다. 일찌기 안정복이 조선후기 학자들의 사철 이기론쟁을 비판하면서, 성리학에 빠지기보다는 하학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한편 황덕길이 『주역』과 『예기』를 次讀에 넣은 반면, 안정복은 별도로 스스로 익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거나, 『소학』과 『가례』를 先讀에 넣은 반면, 안정복은 이 두 책을 매일 익혀야 한다고 한 것과 다른점을 보이기도 하였다.⁴²⁾ 끝으로 역사서를 읽을 때에는 우리나라 역사서를 겹하여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호나 안정복처럼 그도 ‘內經外史’적인 학문관을 벗어나지는 못하였다.⁴³⁾ 그가 안정복의 저서가운데 특히 『하학지남』과 『동사강

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 허전은 이를 그대로 따라 학문하였다고 전한다.(『성재선생문집』 부록, 年譜)

42) 안정복의 독서순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순암집』 6, 서, 書贈鄭君顯, 讀書次第가 참고된다.

43) 황덕길의 역사에 관한 인식은 『하려선생문집』 9, 雜著, 讀史에 간략하게 나타나 있다. 그는 經典이 먼저이고 역사가 그 다음이라 하면서 경전 또한 역사라고 하였다. 역사를 통하여 국가의 정치득실, 인물의 선악, 예악과 형법의 변천, 政畧과 풍속의 연혁 등을 알 수 있고, 학자의 학문도 역사가 아니면 막히게 된다고 하였다. 그만큼 학문함에 있어 역사공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의 역사공부는 이익이나 안정복과 마찬가지로 견전 다음이다. 그는 또 경전은 저술과 잣대이고 역사는 물건의 경중과 장단이 틀리는 것과 같아, 국가의 정치득실과 인물의 선악, 예악과 형법, 정령과 풍속은 경전에 근거하여 다스려지고

목』을 높이 평가한 것을 보면,⁴⁴⁾ 우리나라 역사서로써는 『동사강목』을 꼽았던 것으로 보인다.

황덕길의 이와 같은 독서순서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經典중심의 독서에 『이자수어』를 넣고, 성리학에 관한 독서를 뒤로 미루었다는 점에 있다고 하겠다. 이는 ‘배우는 자는 먼저 洙泗學을 먼저 익히고, 성리학은 뒤에 해야 한다’는 그의 학문관과 일치한다.⁴⁵⁾ 그는 평소 “孔·孟·程朱의 책이 아니면 보지 않는다.”⁴⁶⁾고 할 정도로 경전의 독서에 철저하였다. 洙泗學에 철저해 한다는 성호나 안정복의 학문관을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下學中心의 학문관과 理氣互發論

황덕길은 ①窮理 ②存養 ③省察 ④篤行 등 네가지 학문과정을 제시하고, 하나라도 빠뜨리면 학문이 아니라 하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행동으로 옮겨 돈독히 함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篤行의 기본 요소는 ‘孝悌忠信’이라 하였다.⁴⁷⁾

그는 공부방법으로써 강습을 통하여 배우고(學), 그 이치를 연구하고 궁리하여 생각하는(思) 과정을 통합으로써 학문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것도 결국 하학을 날로 익히고 연마하면 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⁴⁸⁾ 그 자신은 하학에 평생을 바쳤어도 능하지 못하다고 하였다.⁴⁹⁾

밝혀진다고 하였다. 역사로써 알 수 있되 경전으로 바로 잡는다는 뜻이라 하겠다.(잡저, 독사 참조)

44) 황덕길의 順菴祭文

---究詰踐跡 則下學之條列也 見之行事 則東史之筆削也

45) 『하려선생문집』 8, 잡저, 書示韓孟沃, 癸未(1823)

46) 『하려선생문집』 권9, 잡저, 自警文, 戊申(1788)

47) 『하려선생문집』 8, 잡저, 서시한맹옥, 계미(1823)

48) 『하려선생문집』 4, 書, 李景虞(濟翊)

49) 『하려선생문집』 3, 서, 答李穉圭(濟翰), 丁卯(1807)

‘下學而上達’도 몸소 체험하여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이것이 퇴계 이후 문인들이 지켜 온 학문방법이라는 것이다.⁵⁰⁾ 특히 四書의 공부와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중하게 여겼다.⁵¹⁾

그는 하학연마에 필요한 책으로 스승 안정복의 저술 『하학지남』과 이익의 『이자수어』를 꼽으며, 『하학지남』과 『이자수어』는 후학들이 학칙을 삼을만하다고 평가하였다.⁵²⁾

그리하여 그는 『하학지남』이 한 집안에서만 사사로이 소장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읽혀져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이 책은 스승 안정복의 저서 가운데 가장 애착을 지닌 책으로 이미 그 자신은 수십년 전에 읽기 시작하여 몸으로 실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師門의 가르침에 대한 은혜를 저버리고 책을 열 때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함에 부끄러움의 땀으로 옷을 적신다.’고 하였다.⁵³⁾ 안정복의 하학중심 학문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여다 볼 수 있다.

한편 황덕길의 이기론은 『하려선생문집』 雜著에 있는 「四端七情說」, 그리고 李濟翰·鄭鴻慶에게 보낸 편지글에 잘 나타나 있다. 그의 이기론에 관한 견해를 간략하게 소개해 보기로 한다.

황덕길은 율곡의 氣發一途說을 반박하면서 기본적으로 퇴계의 互發論에 근거하여⁵⁴⁾ 理氣互發論을 주장하였다. 그는 “性은 곧 理요 情은

如古者 平生因於下學 而未能也

50) 『하려선생문집』 9, 잡저, 送許文心贈言, 癸未(1823)

51) 『하려선생문집』 3, 서, 答李穡圭(濟漢), 丁卯(1807)

但 不如語孟庸學之切於日用工夫

52) 『하려선생문집』 2, 서, 答安重吉(詰重), 庚辰(1820)

53) 『하려선생문집』 4, 서, 答尹國美(克培)

---見此書目 則爲後學嘉惠者 固非一家之私藏 ---孤負師門教育之恩 每開卷 自不覺 愧汗之沾衣也---

54) 『하려선생문집』 3, 서, 答李穡圭, 戊辰

---栗谷李氏 復申奇說 譏斥李子至 以爲此是道理大頭腦處 於此差却 則不識 大本 更做甚事 世之說者 從而靡靡 莫之遏矣

곧 이기가 호발한 것”이라 하고, 사단칠정의 생성을 전적으로 이발이라 한다던가 기발이라고 하는 것을 온당치 못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즉 理일변도는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고, 氣일변도는 분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율곡의 理氣一元論의 배척은 물론이고, 사단칠정을 모두 이발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도 칠정이 사단의 명을 받는 것은 보았지만 그 苗脈⁵⁵⁾이 氣의 위에서 發하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였다.⁵⁶⁾ 理와 氣는 각각 그 源流는 다르지만 서로 표리의 관계로서 經緯를 이루면서 작용한다는 것이다.⁵⁷⁾ 그는 사람의 知覺은 氣 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理가 감응하여 七情이 만들어 진다고 하였다.⁵⁸⁾ 요컨대 그의 理氣論은 氣가 理에 순종한다는 대전제를 지니지만, 이기를 표리관계로 보고 경위를 이룬다는 이기의 수평적 작용관계를 중시하여 互發을 강조하였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한편 聖人の 七情, 즉 公喜怒가 理發인가 氣發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윤동규와 안정복이 주장한 기발이라는 입장에 동조하였다. 이익이 생존하고 있었을 때 성호학과 안에서는 聖人の 칠정이 이발인가 기발인가의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이익이 『四七新編』의 뒤에 公喜怒문제를 기록하여 붙인 重跋이 이익이 타계한 뒤 논란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처음에 문인 愼侯聘이 공희노가 이발이라는 의견을 내자 이익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 중발에 넣었었다. 뒤에 윤동규가 이것을 보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내자 이익이 다시 지워버렸던 것이다. 이익이

55) 그는 四端은 本의 端緒이고 七情은 根의 苗脈이라 하였다.(四端 卽本之端緒也 七情 卽根之苗脈也)(『하려선생문집』 3, 서, 답이치규, 무진))

56) 『하려선생문집』 9, 설, 사단칠정설

---彼乃見其七情之聽命於四端 而不知其一層苗脈 在氣上發 則其失也

57) 『하려선생문집』 9, 잡저, 사단칠정설, 신해(1791). 같은 책 3, 서, 답이치규, 무진. 같은 책 3, 서, 答鄭釋明, 戊辰에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58) 『하려선생문집』 3, 서, 답이치규, 무진

---人之知覺 非獨氣爲之也 亦必在中之理, 感於形氣 而能成 此七情也

타계한 뒤 이익의 조카 이병휴는 이익이 지워버린 것은 이익의 본심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본시 이병휴는 신후담의 견해에 동조하면서 공회노이발론을 주장하였었다. 이처럼 이익이 생존하였을 때에도 성호문인들 사이에는 공회노가 이발인가 기발인가를 두고 대립하였던 것이다. 윤동규와 안정복은 성인의 칠정도 보통사람에 나타나는 칠정과 다름없이 기발이라 하여 예외를 두지 않았었다. 황덕길은 스승 안정복의 견해에 따라 그의 형 황덕일과 함께 기발론을 수용하였던 것이다.⁵⁹⁾

황덕길의 이기론은 이익의 저서 『사칠신편』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안정복이 일찌기 이 『사칠신편』을 통하여 성리론을 알았다고 하였던 것 처럼,⁶⁰⁾ 황덕길도,

성호선생이 『사칠신편』을 저술하여 李子의 遺意를 발휘하였으니 理氣의 大公案이라 할만하다.(『하려선생문집』 3, 서, 답이치규, 무진)

라 하여, 『사칠신편』이 이기론을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책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만큼 그가 이기론을 이해하는데 이 책의 힘이 컸음을 나타내 준다 하겠다. 요컨대 황덕길의 이기론은 퇴계의 이기론에 바탕을 두면서 성호의 이기론을 이어 받았다 하겠다. 그러나 그도 스승 안정복과 마찬가지로 소득없는 이기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였다. 즉,

‘후대 학자들은 진실치 못하여 나아가는 일은 다만 性命을 高談하는 것 뿐이니 비록 스스로 天人을 學究하여 그 돌아오는 것을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倡家가 禮를 말하는 것에 가깝지 아니한가.’

59) 『사칠신편』의 重跋과 공회노문제에 대한 황덕길의 의견은 이치규에게 보낸 편지(『하려선생문집』 3, 서, 답이치규, 무진)에 수록되어 있다.

60) 졸저, 『순암 안정복의 학문과 사상연구』, (해안, 1996), p.252 참조

라 하였다. 그후부터 나는 망령되이 감히 立論하지 않았다.(『하려선생문집』 권2, 서, 答姜伯賢(淳欽), 戊午(1798))

라 하였듯이, 언젠가 황덕길이 안정복에게 사칠이기에 대해 질문하자 안정복은 당시 학자들이 성리론에 깊이 빠져 즐기는 행태를 기생이 예론을 펴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였다는 것이다. 그 후로 황덕길은 이기론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황덕길 역시 평소에 이기론에 매달리기 보다는 공·맹의 학문에 충실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西學認識

황덕일·황덕길 형제는 18세기 후반 노년기 안정복이 이른바 서학으로 대표된 이단사상을 적극적으로 배척하던 시기에 안정복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특히 이들 형제는 누구보다도 안정복의 천주교 배척 정신을 철저하게 교육받았고,⁶¹⁾ 더불어 안정복이 쓴 「天學考」와 「天學問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1791년 안정복이 타계한 이후, 황덕일·황덕길 형제 역시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천주교배척에 적극적이었다. 황덕길의 서학인식은 그가 쓴 「異端說」에 잘 나타나 있다.⁶²⁾ 그는 楊朱·墨翟·老子·釋迦·陸九淵·王陽明의 학문을 모두 이단이라 규정하고 물건에 생기는 좀벌레로 비유하였다. 그리고 天學⁶³⁾ 즉 천주교에 대해서는 더욱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예절을 무시하고 윤리를 끊으며 허황됨이 노자나 석가의 교리보다 심하고, 경전에 있는 내용을 표절함이 양명학의 열배나 된다고 하

61) 「순암집」 8, 書, 答黃莘叟書, 戊申(1788) 및 「공백당선생문집」 4, 雜著, 德谷記聞 등에 잘 나타나 있다.

62) 「하려선생문집」 9, 잡저, 이단설

63)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天學이란 西學을 가리키는 것이며, 서학가운데에서도 천주교를 지목하여 비판한 것이라 하겠다.

였다. 또한 그 해독이 홍수나 맹수의 해독보다 심하다 하면서, 만약 맹자나 정자, 주자가 다시 나타난다면 종래의 이단학에 대한 비판을 넘어 엄하게 배척하였을 것이라 하였다. 그만큼 그는 강한 천주교 배척의식을 나타냈다.

그는 이단을 막는 길은 ‘自治’라 하였다. ‘自治’란 옛 성현의 말씀과 덕행을 본받아 大道를 밝히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孔·孟의 학문과 程朱學에 매진하면 이단학이 발붙이지 못한다는 견해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단의 퇴치는 하학의 연마에 있다는 뜻이라 하겠다. 이는 생전의 안정복이 서학을 배척하는 길은 하학을 충실히 연마할 뿐이라고 제자들에게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그는 또 천주교배척에 이익과 안정복의 공이 컸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익이 살아 있을 때에는 서학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으나 이익은 「七克說」⁶⁴⁾과 「天主實義辨」을 지어 後學들로 하여금 경계토록 하였고, 안정복은 이익의 뜻을 이어 천주교의 확산을 막아 혹 성호문인가운데 한두명이 천주교에 빠졌을 때에 안정복의 감화로 햇빛을 보았다고 하였다. 더불어 후학들이 이익과 안정복의 천주교비판에 대한 저서를 읽어 경계할 것을 말하였다.⁶⁵⁾

요컨대 황덕길도 스승 안정복의 뜻을 이어 천주교확산에 대처하는 길은 오직 하학을 연마하는 데에 있다고 보고 이를 후학들에게 철저히 심어주려 하였다. 황덕길의 천주교배척은 비슷한 시기의 영남남인 상주 사람 南漢朝와 어깨를 겨룬다 하겠다. 李象靖의 문인으로 안정복의 문하를 자주 드나들던 남한조는 안정복이 「천학문답」을 쓸 때 더욱 적극적인 배척의식을 나타내면서 자문한 사람이다.⁶⁶⁾

64) 「七克」은 마태오 리치와 함께 북경에서 전교활동을 하던 龐迪我(Didance de Pantoja 1571-1618)가 쓴 책이다. 「七克說」은 이익이 「칠극」의 내용을 분석하고 비판하여 쓴 글로 생각된다.

65) 이상과 같은 성호와 순암의 천주교비판과 배척에 대한 황덕길의 ~글은 「하려선생문집」 4, 서, 答鄭希仁, 丙戌(1826)에 나타나 있다.

하학중심의 학문관과 철저한 천주교배척은 순암계열 성호학통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이후 후학들에게 전승되어 나아 가면서, 19세기 후반 영남남인과 손을 잡고 영남지방에서 새롭게 성호학파를 일으키는 학문적·사상적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이제 황덕길이 새롭게 순암계열 성호학파의 문을 연 인물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맺음말로 갈음하고자 한다.

1791년 안정복이 타계한 뒤, 황덕길이 19세기 초 성호학통을 전승시키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18세기 성호학파가 실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있어서나 그후 성호학파의 진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눈여겨 볼 부분이다. 황덕길이 안정복계열 성호학파에 속하였던 사람으로 18세기 성호학파를 그대로 전승·대변한다고 말하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18세기 말 성호문인들 가운데 천주교에 관련된 문인들이 분리되면서 성호학파는 사실상 진로가 어두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파적 성향을 지닌 성호문인 안정복이 광주 덕곡에서 성호학문과 성호학파의 유지를 위해 노력해 왔고, 그의 문인들이 뜻을 이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황덕길·황덕길 형제로써 이들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성호학통을 이어 나아가는데 앞장서면서 후학을 양성하였던 것이다.

황덕길의 여러 제자가운데 허전은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었다. 허전은 1817년 황덕길의 문하생이 되어 가르침을 받았고, 1835년 문과에 급제한 후 벼슬길에 올라 1864년 김해부사로 나아간 것을 계기로 그곳에서 후학교육에 힘써 많은 문인을 배출하였다. 이로써 안정복으로부터 황덕

길로 이어지고 다시 허전에 계승된 순암계열 성호학통은 영남지방에서 새롭게 빛을 보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 18세기 영남지방의 학자들이 안산을 오르내린 성호문인이 있었기 때문에 성호학문이 이미 영남지방에 잘 알려져 있었다. 그러다가 1세기가 지난 후 순암계통의 허전이 다시 영남지방에 성호학문을 일으켰던 것이다. 허전이 영남지방에서 다시 성호학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도 돌이켜 보면 영남남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스승 황덕길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 제1세대 성호문인으로 이루어진 성호학파의 뒤를 이은 계파 가운데 적어도 사승관계로 맥을 이어 온 순암계열 성호학통이 대표적인 성호학파라고 말하여 좋을 것이다. 가까운 가문관계나 학연으로 스승과 제자 사이를 형성하여 안정복→황덕길→허전으로 이어진 학통은 19세기 말까지 계속되었고, 이후 많은 허전문인들이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배출되었다.

황덕길 이후 순암계열 성호학통을 요약 정리해 보면, 첫째 이 학통에 속한 문인들은 한결같이 성호학통의 계보의식이 강하였고, 둘째 사승관계를 맺어 성호학문을 철저하게 전승시켜 왔으며, 셋째 적어도 100년 이상의 학통을 유지하면서 20세기까지 전승시켜 왔던 것이다. 필자가 순암학통을 성호학파의 대표적인 계파로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허전의 문인들은 1890년 스승 허전의 문집을 비롯하여 20세기 초에는 성호 이익과 순암 안정복, 그리고 황덕길의 문집간행을 자신들의 할 일이라 여기고 완수하였다는 점도 이들의 투철한 계보의식에서 나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순암계열이 분열되기 이전의 18세기 성호학파를 온전히 계승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으나 19세기를 거쳐 20세기 초까지 성호학통을 지켜온 본류라 평가하여 좋을 것이다.